

ESG 대학 연합, 첫발을 내딛다

ESG 대학 연합 MOU 및 정기이사회 진행



▶ 대학 연합 발대식 개최

우리 대학 LINC 3.0 사업단이 지난 22일, 센텀캠퍼스에서 ESG 대학 연합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 협약 체결 및 정기이사회를 진행했다.

ESG 지배구조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이날 LINC 3.0 사업단은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남권 동서대, 경남대 ▲수도권 동국대 ▲충청권 대전대 ▲호남·제주권 제주대, 호남대 ▲대경·강원권 계명대, 한림대 간의 'LINC 3.0 ESG 기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ESG 대학 연합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대학은 ▲ESG 기반 산학협력 정보공유, 공동연구 등에 관한 상호 협력 및 공동 운영 ▲ESG 기반 대학 인프라, 아이디어 공유 및 우수 사례 창출을 위한 협업 ▲ESG 관련 기업 연계 교육 과정 참여 기업 및 학생 연계 ▲대학

간 ICC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프로그램 ▲지역별 가족회사 간의 연계 기반 구축 및 협력 지원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SG 대학 연합은 지역사회공헌연구회가 ESG 관련 산학협력을 위해 만든 전국 LINC 3.0 사업단 협의체로, 2017년부터 지역사회공헌 캠퍼스디자인페어 8회, 아이디어톤 5회, 연구회 세미나 25회 등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수행했다.

ESG 대학 연합 첫 협업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초에 개최하는 ESG 페스티벌이며, ESG 캠퍼스디자인페어, ESG 아이디어톤, ESG 포럼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황기현 LINC 3.0 사업단장은 "공유 협업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 중인 동서대 LINC 3.0 사업단이 ESG 대학 연합을 통해서 산학연 공유 협업 네트워크 활동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

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주요 발생 요인 중 하나로 기후 변화가 언급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며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K-ESG 가이드라인'을 통해 ESG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학도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ESG 경영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 미래정책연구실은 'ESG 경영과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KASFO BRIEF>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대학이 ESG 경영을 도입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정리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과 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국가로부터 재정을 받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니므로 ESG 지배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 대학은 이런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



▶ 우리 대학 전경

학년 LINC+ 사업단이 주최하고 부산환경운동연합이 후원하는 ESG 프로젝트 행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 8월에는 <기후위기 시대, ESG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센텀캠퍼스에서 2022 ESG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에서는 ▲ESG 오해 바로잡기 ▲유럽 그린딜을 위한 분류법의 역할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 ▲기후 변화에 놀란 소비자가 바라는 ESG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해당 강의를 위해 브라운대학교 캐리 크로스킨스키(Cary Krosinsky) 교수, 유럽 위원회(ERCST) 선임정책관 바텍 시즈키(Bartek Czczyński) 등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였다.

우리 대학은 이처럼 ESG 지배구조 아래 대학의 역할에 충실해 임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래 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김규리 기자
Orlarbfi1@gmail.com

AI 트렌드가 한곳에 모이다

'AI KOREA 2022' 서 다양한 기술 및 성과 전시



▶ AI KOREA 2022 행사장

부산광역시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AI 종합 전시회 'AI KOREA 2022'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됐다.

'AI, 사람과 산업을 연결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AI 기술관 ▲메타버스관 ▲AI 교육관 ▲블록체인관 ▲세미나관으로 구성돼 각 관심분야의 주제에 맞는 기술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AI 교육관에서는 AI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AI 기술관에서는 로봇·가전 등 다양한 AI 제품 등의 전시물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다. 또 부산 AI 특별관에서만 관람할 수 있는 부산 전략 사업 연계 AI 기술 및 제품도 함께 전시했다. 블록체인 관에서는 블록체인 특수 연계 등을 전시했고, 메타버스관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과 기술, 콘텐츠, 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스타트업관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의 제품을 시연하고 벤처투자자를 초청했다.

우리 대학 SW중심대학사업단은 전시회에 참석해 다양한 AI 연구 및 프로젝트, VR, 빅데이터에 기반한 결과물을 전시 및 시연했다.

세부적으로는 학교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한 다양한 4차산업 시대 혁신 기술, 캡스톤 디자인 성과물, 학부 연구생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융합 기술을 연구하는 AI+X 연구소, SW융합연계전공 등을 선보였다.

특히 SW융합연계전공의 대표적 성과인 'AI 가상 아이돌 프로젝트'는 썬아이아이랩과 공연 및 웹드라마 촬영 계약까지 성사시켰다. 메타버스 FPS 게임과 VR 게임 프로젝트는 행사장 내에서 전문가 및 학생 등의 참가자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소프트웨어중심 대학사업단장 문미경 교수는 "우리 동서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부산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많은 관람객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로봇의 전공 분야, 융합 연계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돼 감개무량하다. 나아가 동서대학교 소프트웨어중심 대학사업단의 훌륭한 결과물과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김규리 기자
Orlarbfi1@gmail.com

한·일 양국 협력을 위해 손잡다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와 MOU 체결



▶ 상호 협력 협약서 체결

우리 대학 일본연구센터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가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외교터전 12층 KNDA홀에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우리 대학 측에서는 장재국 총장, 신정화 일본연구센터소장이 서명했으며, 국립외교원 측에서는 홍현의 국립외교원장, 조양현 일본연구센터 책임교수가 서명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은 양 기관 간의 일본 관련 공동 연구와 학술 교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상호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앞으로 각 기관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일본 관련 학술 회의 및 세미나 공동 개최 ▲각종 연구 및 행사에 상호 초청 및 인사 교류 활성화 ▲각 기관이 보유한 연구 정보 및 정기간행

물 등의 자료 제공 협약서 체결 후 양 기관은 협력 취지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특별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을 검토하고, 일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비교하며 한일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다.

우리 대학 일본연구센터에서는 장재국 총장과 신정화 소장, 국립외교원에서는 홍현의 원장과 조양현 책임교수가 참석했다. 조양현 책임교수의 사회 아래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니시노 준야 게이오 대학교 교수의 발표와 신정화 소장,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일도 국립외교원 부교수의 지정 토론 및 참석자 전원의 자유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 일본연구센터 사업 내용

회의에는 패널 외에도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김용민 건국대학교 교수, 이상숙 외교사연구센터 연구교수, 윤석정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유지선·이광희·김미정·조아라 연구원이 참여했다.

우리 대학 장재국 총장은 "이번 양 기관의 협력으로 한일관계 공동 연구와 각종 학술회의 및 공동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외교부 소속 국제 연구기관으로, 1965년 '외교연구원'으로 출발한 이래 우리나라 외교안보 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성장했다. 또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중장기 외교 정책에 대한 연구 분석과 각종 외교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 제언을 통해 외교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우리 대학 일본연구센터는 2003년 9월 설립돼 부산을 거점으로 두고 일본 및 한일 관계에 대한 연구 및 양국 사이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을 전개해 왔다.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일 공동 연구'라는 토론 테마 아래에 제19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갈등과 협력이 공존해 온 지난 50년의 한일관계를 되돌아보며 조화롭고 안정된 질서를 위해 양국이 새로운 차원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런 시대적 과제를 위해 우리 대학 일본연구센터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김규리 기자
Orlarbfi1@gmail.com

꿈을 꾸는 데 나이는 없다!

에버그린 시니어 배우, 비타500 광고 출연



▶ 비타500 광고 스틸컷

우리 대학과 기장군이 협업해 운영 중인 에버그린 영화대학 및 에이전시 소속 배우 16명이 광동제와 비타500 TV 광고에 출연했다. 이번 광고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건강한 선택'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시니어 배우로서 인생 제2막을 펼친 배우들이 비타500과 함께 힘찬 미래를 그리는 내용을 담았다. 배우들은 비타500을 손에 쥐고 "에버그린 파이팅, 비타500 파이팅"을 외쳤다.

연출을 맡은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오세준 교수는 "정춘 못지 않게 다부진 시니어 열정을 영상에 자연스럽게 녹여주고 했다. 에버그린 영화대학의 교육을 받은 시니어 배우들의 표현력이 매번 성장하고 있음을 체감한다. 시니어 배우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꾸준히 응원 바란다"라고 밝혔다.

에버그린은 이번 광고를 포함해 2년 연속 소속 배우를 TV에 출연시키며 에버그린 영화대학 및 에이전시의 순항을 증명했다. 작년에는 소속 배우 김준태, 이혜순 씨가 공익 광고 '나부터 챌린지'에 출연한 바 있다.

'나부터 챌린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광고로, 해당 광고에서 김준태

배우는 학교 방역에 힘쓰는 교장 선생님 역할을, 이혜순 배우는 코로나19를 지켜보는 시민 역할을 맡았다.

에버그린 영화대학은 '시니어의 행복한 삶'에 초점을 두고 시니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을 변화시켜 건강과 빈곤 문제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에버그린 프로젝트 중 하나로, 기장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연기·노래·춤 등을 교육하고, 배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시니어 배우 양성 학교다.

교육생들은 에버그린 에이전시에도 소속돼 영화·방송·광고 등의 촬영 캐스팅까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고 있다. 에버그린은 소속 배우들의 활동 영역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에버그린 프로젝트의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영화대학 외에도 에이전시, 마을미디어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재정생 교육진흥원의 2022 지역사회 상상·협력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김규리 기자
Orlarbfi1@gmail.com

성경 암송대회 개최!

건학이념 실천과 영적 성장을 위한 발판



▶대학교회 전경

▷사진출처 : 테오 블로그



▶기도

▷사진출처 : pixabay

우리 대학은 민석(民石) 장성만 박사 내외분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해 설립한 대학이다. 우리 대학은 근본적으로 기존 교육과는 다른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우리 대학이 만들어갈 미래형 대학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 즉 자기만의 달란트를 발굴하고 제대로 키워주기 위해 정형화된 틀을 깨는 새로운 교육을 시도한다. 우리 대학은 저비용·고효율 교육체제로 변화하기 위한 '영화감독형 교수 시스템'을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교수가 특정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을 섭외해 특강 위주의 수업을 한 뒤 학기가 끝나면 해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외국 유학생 유치에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아시아연합대학(AAU)을 제시했다. AAU는 2년간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접속해 우리 대학이 제공하는 강의를 듣고, 자국의 협력 대학에서 대면 수업받는 방식이다. 3학년이 되면 우리 대학으로 유학을 와 2년간 공부하고 학위를 받는 국내의 전례가 없는 방식이다. 우리 대학은 기존의 틀을 깬 새로운 교육방식을 제시하며, 학생들 개개인의 달란트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 대학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과 학교생활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학생들의 인격을 완성하고 하나님과 인

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1학년에서 3학년 교육과정에 채플 교과목을 편성해 채플 수업을 통해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구원의 도리, 자아 발견과 인격 성숙, 바람직한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올바른 세계관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삶의 영역을 체득을 통해 배우도록 수업을 편성했다.

한편,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 구현과 함께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성경 암송대회를 개최한다.

성경 암송대회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 주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성경 암송의 목적은 나침반과 같다. 어떤 일을 할 때 내면의 움직임은 원동력을 만들어주며,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반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며 말한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제자는 훈련받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배우고 훈련받는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말이였다. 따라

서 제자 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 암송에서 시작된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의 첫걸음을 성경 암송에 두었다. 한복을 8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라고 한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깨달음을 얻게 된다. 깨달음을 얻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은 이렇게 말한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해 흑백 배, 혹은 심실 배, 혹은 삼실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암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에 새기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머리의 변화가 아닌 마음의 변화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암송을 통해 말씀을 새길 때 머리에만 새기는 것이 아닌 마음에 새긴다면 마음으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성경 암송대회는 시편 90편을 범위로 한다.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전해지는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만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밝히면서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 시(prayer psalm)다. 또한, 하나님께 간구와 아울러, 이스라엘의 국가적 심판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는 비탄 시다. 시편 90편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을 배우시기를 바라는 간구와 함께 인간의 덧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의지함으로써 진정한 민족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원이 담겨있다.

성경 암송대회를 주최하는 교목실의 최민구 교목실장은 시편 90편을 선정한 이유로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시간을 아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는 경험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중심적인 시간 개념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보자는 거죠. 내 나이 80~100년이란 시간은 영원에 비교하자면 꽤 불과한 것 같은 인생이기에 시편 90편을 암송해보면서 인생의 시간에 대해 객관화도 해보고, 더 나아가 '잡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편 90편을 선정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시편 90편 암송을 통해 인생에 대한 고민과 성찰 통한 발전을 바랐다.

성경 암송대회는 11월 07일(월)에서 12월 02일(금) 17시까지 접수하며, 12월 07일(목) 13시에 대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시상식은 12월 20일(월) 15시에 실시한다.

주태연 기자
jootaeyeon@gmail.com

영상애니메이션학과의 금빛 향연

대전 비주얼아트테크 어워드 4년 연속 수상



▶영상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의 수상 모습

우리 대학 영상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의 작품이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 대전 비주얼아트테크 어워드'에서 대상(1팀) 우수상(1팀) 장려상(1팀)을 4년 연속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8일 대전 e 스포츠 경기장에서 개최된 '2022 대전 비주얼아트테크 어워드'는 한국 시각효과 분야 발전에 기여할 만한 작품들을 선정해 작품 제작에 기여한 우수한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시상하는 행사다. '2022 대전 비주얼아트테크 어워드'는 아마추어와 현업에 활동하는 VFX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공모전으로 본선에 오른 작품은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합산해 수상 작품이 정해졌다.

애니메이션학과 신주연(팀장)·백지연·박지혜·김예나 학생이 공동 제작한 '갯백(Get Back)'이 영예의 대상(상금 400만원), 김동희(팀장)·하예진·강다현·류지연 학생의 작품 '더 펜던트(The Pendant)'가 우수상(상금 100만원)을 받았으며, 박기범(팀장)·김다희·김유리·손규섭 학생이 공동 제작한 '그때 그 시절, 그 거리'가 장려상(상금 50만원)을 수상했다.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받은 작품들은 우리 대학의 LINC3.0 모델형 캡스톤디자인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영상애니메이션학과에서 진행한 수업의 결과물이다.

주태연 기자
jootaeyeon@gmail.com

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체 또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작품을 학생들이 스스로 설계하고, 기획·제작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전 과정을 경험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캡스톤디자인의 목적성은 학문 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또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작품 또는 제작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학생들 스스로 설계, 제작, 평가하며, 이를 통해 창의성, 실무 능력 및 발표 능력을 향상하고, 팀워크 능력을 제고하며,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중 모델형 캡스톤디자인은 학과별 특성이 반영된 PBL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 및 예산 사용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학과에서 자체 운영한다. 이런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창작물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대상을 받은 '갯백'은 지구가 멸망하고 살아남은 과학자와 그가 개발한 로봇의 우정과 절망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 속에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다. 뛰어난 영상미와 사실적인 시각효과가 돋보이는 작품이며, 올해 가장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 표현과 연출력이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주태연 기자
jootaeyeon@gmail.com

태극마크로 향하는 금빛 활시위

제103회 전국체전 여자 대학부 60m 금메달



▶활시위를 당기는 박세은 학생



▶우리 대학의 양궁 선수들

우리 대학은 2006년 3월 24일 부산지역 대학에서 처음으로 양궁부를 창단했다. 우리나라 양궁을 이끌어 줄 스타들을 키워내고 스포츠를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양궁부를 출범시켰다.

우리 대학 체육학과 3학년 박세은 학생은 지난 8일 울산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전 여자 대학부 60m 종목에서 346점을 쏘아 341점에 그친 안산(광주여대)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지난 2017년 제98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대학 양궁부 박미란 선수가 대학부 70m에서 334점을 기록해 금메달을 받았으며, 5년 만에 얻은 새로운 결실이다.

박세은 학생은 이번 대회에서 ▲단체종합 ▲30m ▲50m ▲60m ▲70m ▲개인전 ▲단체전 등 총 8종목에 출전해 60m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11일 열린 개인전과 단체전에서는 아쉽게 16강에서 탈락했다.

박세은 학생은 광주 문산초등학교 4학년 때 체격 조건이 좋아 양궁을 시작한 후, 광주 체중, 체고로 진학했다. 고등학교 2

학년 때 슬럼프가 찾아와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무거운 슬럼프를 이겨내고, 고등학교 3학년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고등부 개인전 금메달, 60m 은메달을 차지하며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최고의 선수들은 대학 진학보다는 실업팀에 입단하는 관례에 따라 광주시청에 입단했지만, 공부에 대한 미련을 놓을 수 없어 조신대 야간학부에 등록해 주경야복에 매진했다.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국 남·여 종합선수권대회 여자일반부 3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며 놀라운 성과를 보였지만, 저학년이면 학교에 가 공부하는 자신이 운동에만 전념하는 선배들과 팀에 방해가 될까 노심초사 마음고생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공부에 대한 욕심을 포기할 수 없었던 박세은 학생은 올해 2022년 초, 광주시청을 나와서 우리 대학에 들어왔고, 원하던 공부와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됐다.

박세은 학생은 평소에는 500~700발, 그

리고 많은 날은 1,000발의 활을 쏜다고 한다. 2021년 제32회 도쿄 올림픽 양궁 남자단체전 금메달을 얻은 김재덕 또한 매일 700~1,000발의 훈련량을 소화하고 있다. 그의 인터뷰에서는 하루에 1,000발을 쏠려면 아침 8시부터 밤 10~12시까지 활을 쏘야 1,000발을 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박세은 학생의 금메달은 노력과 땀으로 이뤄낸 자신만의 온전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번 결승전은 박세은 학생에게 노력의 결과물이자 재회의 순간이다. 광주체중과 체고 동창인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따냈다. 박세은 학생과 안산은 어릴 때부터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다. 제100회 전국체전 때는 60m에서 안산이 금메달, 박세은이 은메달을 땀고, 개인전에서 박세은이 은메달, 안산이 금메달을 차지했다. 박세은 학생은 인터뷰에서 "결승에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중학교 때부터 자주 마주쳤던 것 같다"라며 "아무래도 동기이다 보니가 결승에 가면 아는 사람이 있으니 심적으로 편해지는 게 있더라"라고

말했다. 안산이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 3관왕을 차지하면서 더 좋은 자국이 됐다. 박세은 학생은 "안산이 올림픽에서 3관왕을 했을 때 저는 팬클럽인데 오히려 주변에서 신경을 많이 쓰더라"라며 "그래도 같은 종목 선수이다 보니 선의의 경쟁이 되고 더 발전하는 밑거름이 됐다. 서로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사이"라고 말했다.

박세은 학생은 금메달 인터뷰에서 '이직 태극마크를 달지 못해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당장의 목표다. 양궁은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세계 무대 1등만큼 어렵다고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나만하지 않고 꾸준한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번 전국체전 금메달이 좋은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 꼭 국가대표가 돼 다음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우리 신문사 또한 박세은 학생이 국가대표가 돼 우리 대학과 대한민국을 빛낼 것이라 생각한다.

주태연 기자
jootaeyeon@gmail.com

부산을 아름답게 가꾸는 연합회

시니어운동처방학과 발전을 위한 기부금 전달



▶기부금 전달식

우리 대학 미래커리어대학 시니어운동처방학과 부산경남김연합회 학과 발전기금 기탁식이 진행됐다.

부산경남김연합회는 2021년 이후 매년 클래스 셀링 개설과 시니어운동처방학과 발전기금을 기탁해주고 있으며, 22-1학기 기부금 5,000,000 원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하며, 22-1학기 기부금 5,000,000 원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시니어운동처방학과 학생들과 함께 부산 갈매길 도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산 갈매길 시점과 종점의 대중교통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공동 진행했다.

부산경남김연합회는 부산의 길을 위한 시민단체다. 부산을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지역의 길이라는 자신과 가치를 재발견해 부산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내가 걷고 이웃이 함께 걸으면 저탄소 녹색도시 부산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과 지속가능한 문화 관광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경남김연합회는 길과 걷기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

부산경남김연합회의 구체적인 활동은

걷는 길을 만들고 관리하는 분들과 함께 갈매길 걷기 하는 시민들을 인터뷰하고 걸으면서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길의 불편함을 보완하고 개선사항을 찾아 길의 관리에 반영한다. 또한, 길 걷기 조직을 통해 부산을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는 시민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및 우리 대학 학생들이 또한 함께하고 있다. 지역의 길이라는 자신과 그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연구 활동과 포럼을 열고 있으며, 다양한 길 걷기 프로그램과 각종 도심지역의 테마길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대학과 부산경남김연합회는 ▲부산 갈매길 관광 자원화 공동 연구 ▲시민참여 보행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운영 ▲세계걷기총회(WTC) 유치를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 구성 등 부산 도보 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부산 갈매길 걷기 문화 관광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공동의 뜻을 모아 협력하기로 했다.

주태연 기자
jootaeyeon@gmail.com

미래 스타트업도 동서인이 이끈다

부산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쾌거



▶v603팀

지난 9월 3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8회 부산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본선을 개최하고 수상팀을 선정했다. 대회에는 우리 대학의 창업팀 'v603'이 최우수상을 받으며 200만 원의 상금을 거머쥐었다.

이번 대회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우리 대학 및 ▲부산경제진흥원 ▲부산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단 ▲부경대학교 ▲동아대학교가 주관하며, 한국남부발전이 후원한 청년 창업문화 확산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부산의 대표적인 청년 창업 행사다.

지난 2015년에 시작돼,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본 대회는 지난해까지 전국 총 2,22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550여 개의 창업 아이디어를 선보인 바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또한, 코로나19로 온라인-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고, 오프라인 발표자와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참가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67개 팀, 205명의 부산지역 고등학생과 전국 대학생이 참가해 서류 심사와 예선 심사를 거쳤다. 심사위원의 심사숙고 끝에 최종적으로 최우수 2개 팀, 대학부 8개 팀으로 구성된, 총 10개의 팀이 이날 본선에 진출했다.

특히, 이날 본선에 진출한 참가팀에게는 발표 기술 향상을 위한 실전창업교육과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를 위한 멘토링 기회도 제공됐다.

치열한 경쟁 끝에 의료폐기물 스마트 관리시스템 아이디어로 참가한 '크론'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총 3팀이 수상했다. 그중 우리 대학 학생이 선보인 ▲'v603'팀의 페마스크를 활용한 친환경 건설 재료 활용 및 페마스크 인공지능(AI) 인식 로봇 아이디어가 있으며, 그 외에도 ▲'PlayGround'팀의 스마트웨어 활용, 근전도 데이터 기반 PT 솔루션 '다터피티' 아이디어 ▲'바이웨이 이스트팀'의 내구성이 강한 소방호스 업사이클링 반려동물 장난감 아이디어가 있다.

우수상은 ▲'왓챗'팀의 세균박멸, 은나노실리온 마우스케이스 아이디어 ▲'백지니스팀'의 고양이 화장실 모래를 케어 서비스 아이디어 ▲'장전동 풀벌단'팀의 수소 항공기용 분리동력 동력부 포드 아이디어로 3팀이 수상한 바 있다.

장려상은 다음과 같다. ▲'Meta Ocean'팀의 대체 불가 토큰(NFT)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3D 그래픽 디자인 2차 저자 권한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 ▲'인셉션'팀의 전동차 사고 대처를 위한 자동 비상 시디리와 작업



▶v603팀 발표 현장

인부 사고방지를 위한 전동차 위치 알리기 아이디어인 ▲'BE : HAND'팀의 비접촉식 손 세척기 아이디어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 대학에서 11팀이 참가했는데, 그중 v603팀(대표: 주태연·건축공학과 3학년)팀이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v603팀은 페마스크를 활용한 친환경 건설 재료 활용 및 페마스크 AI 인식 로봇 아이디어를 선보여 심사위원들과 청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 수상한 10개 팀에게는 대상 500만 원 등 총 1,55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향후 부산시의 창업 지원사업에 응모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됐다.

박진석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아시아 창업 도시 부산을 이끌 어갈 미래 주인공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라며,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v603팀은 우리 대학의 LINC3.0사업단 창업교육센터의 창업동아리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지원단의 실전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아이템 멘토링과 발표 자료 고도화 등을 통해 구체화

시킨 결과물로, 이번 대회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v603'팀은 "페마스크의 재활용으로 시작한 사소한 아이디어가 선별 로봇을 결합한 융합기술로 확장하면서 대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학교 교수님, 창업지원단 및 LINC3.0 사업단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정도은 창업지원단장은 "부산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창업의 꿈을 키우고 체험할 수 있는 첫 단계다. 이러한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창업지원단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이를 위해 동서대 창업지원단에서는 창업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학생도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 대학의 창업지원단 홈페이지를 살펴보자. 창업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것이다.

조수연 기자
noeyushc@gmail.com

■학과장 인터뷰 - 이승희 웹툰학과 학과장

따끈따끈한 신작, 더 매력 있는 웹툰학과



이승희 웹툰학과 학과장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웹툰학과 학과장 이승희 교수입니다.

Q. 웹툰학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2022년도에 신설한 웹툰학과는 'K-웹툰'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인 실무 전문자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신설된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수시 모집 경쟁률에서 8:1, 2023년도 수시 모집 7:1을 기록해 부·울·경 대학별 웹툰학과 경쟁률 1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요즘 뜨겁게 뜨고 있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미디어컨텐츠대학의 타 학과는 다르게 신설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웹툰 수요에 따른 전문가 양성에 대한 필요성과 재학생들의 웹툰분야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신선했습니다. 올해 1학기만 전과 문의 상담을 20건 이상 진행한 걸 보고 재학생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Q. 웹툰 학과만의 강점이 궁금해요.
A. 첫째, 국내 최고의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하는 인기 작가, 국내 최고 캐릭터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로 세계 디지털 일러스트 대회 참여 경력을 가진 분야별 최고의 실무 중심 아티스트의 막강한 교수진의 탄탄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진로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웹툰작가로 활동하는 졸업생 특강이나 야외 스케치, 누드드로잉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웹툰학과는 수준 높은 첨단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애니메이션학과 게임학과 등 타과의 교류를 통한 협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Q. 학과의 진로와 전망이 궁금해요.
A. 2022학번 웹툰학과 신입생 면담결과, 희망진로가 웹툰이 50%로 많은 학생들이 웹툰작가를 꿈꾸고 있어요. 웹툰 학과 졸업 후 진로는 웹툰 작가, 스토리 작가, 웹툰 피디 그리고 웹툰 분야뿐만 아니라 캐릭터 디자이너, 원화가, 디지털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양한 진로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Q. 추천하는 만화나 웹툰이 있을까요?
A. 아직 소장을 하고 있는 저의 '최애' 만화책 <슬램덩크>와 <드래곤 볼>입니다. 슬램덩크는 많은 예능프로그램과 스포츠 만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감동이 있는 만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래곤 볼은 독특한 캐릭터 디자인과 코믹하고 다이내믹한 긴장감과 스토리 전개가 대단합니다. 한 작품 더 소개가 드리자면 <아기공룡둘리> 김수정 작가의 <일곱개의 숲가락>입니다. 훈훈한 감동에 큰 비중을 두는 가족소재 만화로, 아직까지 가슴에 울림이 남아있는 거 보면 기억에 남는 따뜻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대학은 기술 교습소가 아니라 신념의 완성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개인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표현보다는 돕겠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동서대학교 웹툰학과를 희망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맡겨 놓지 않을 기회를 주는 행복만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최지혜 수습기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일본 파견!

2022학년도 2학기 '일본 SAP+' 출국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는 학생들

2020년 1학기부터 코로나19로 멈추었던 일본 Study Abroad Program+(SAP+)가 2022년 2학기, 다시 재개됐다. 우리 대학이 자랑하는 학생인재 아카데미 프로그램인 SAP는 유학이나 해외연수의 꿈이 있거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미국과 중국, 일본에 소재한 해외캠퍼스 및 자매대학에서 외국어는 물론 현지 문화 체험과 전공 공부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글로벌 학습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일본 SAP가 신설된 이후, 일본경제대학 후쿠오카 캠퍼스에 30명 안팎의 학생을 파견해 대학의 경제 제 지원 속에서 학업과 일본문화 체험을 하게 된다. 이번엔 새롭게 재개된 일본 SAP+는 일본어 집중 학습 및 일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해왔던 일본 후쿠오카지역 이해를 위한 현지 창업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귀국 후에는 창업 콘테스트를 열어, 연수기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 내용을 발표하게 된다.

이번 일본 SAP+에 참가한 20명의 학생은 그간 일본 유학을 꿈꾸며 몇 번이나 일본 SAP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포함해 ▲미디어콘텐츠대학의 방송영상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인공지능융합학과 ▲디자인대학의 패션디자인학과 ▲글로벌영화예술대학 영화과 등에 소속된 학생들로, 일본 후쿠오카 유학길에 올라 현지에서 무사히 도착했다.

이번 일본 SAP+에 파견된 일본경제대학 후쿠오카캠퍼스에서 학교와 국내에서 배울 수 없는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파견 학생들의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먼저 임권택영화대학 영화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최은수 학생의 소감이다.

"여름이 끝나간다. SAP 합격 통지를 받은 후 놀기도 하고 일도 해보며 출국을 준비하다 보니 계절이 다 지나갔다. 무사히 출국할 수 있을까, 탈 없이 지낼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기도 모르고 있었다. 파견 일이 목전에 다가오자 드디어 실감이 났다. SAP 신청 당시 작성한 계획들과 지원 동기가 떠오르



▶일본경제대학에 도착한 학생들

며 괜히 비장해졌다. 겨우 4개월인데, 부담 없이 다녀오라는 말들을 감싸고 안고서 공방에 도착했다. 코로나로 오랜 시간 막혀있던 하늘길이 서서히 열리고, 그 과정에 내가 있다는 게 새삼 설다. SAP라는 좋은 기회를 만나 부산, 한국을 넘어 타지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구나. 한 학기 동안 학교(동서대학교)의 일반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점이 걱정과 불안도 느꼈으나 아직 대학생이니까 눈앞의 기회를 따라가자는 마음도 있었다. 일단 도전이다. 아직 대학생이니까, 모두가 그렇듯 걱정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을 끌어안은 채 드디어 비행기가 탄다. 부디 문제 없기를, 기어코 언어오기틀, 큰 다짐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한 만큼 현지 수업을 꼭꼭 씹어 소화해 내는 것이 당장의 목표다. 지금은 무섭고, 아직은 어려워도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가벼울 수 있도록 23살의 4개월이 살아온, 살아갈 순간들에 방점을 찍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열심을 다짐하는 바다. 무탈하게 다녀오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준 학교와, 응원해 준 분들께 감사할 따름이다 2022년 여름, 공방에서"

일본 후쿠오카 START UP CAFE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후쿠오카시가 다양한 나이와 국적의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START UP CAFE'가 위치한 Fukuoka Growth Next 건물과 START UP CAFE 내부 전경 등, 우리 대학의 이름으로 일본에 파견된 학생들에게 편의 생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일본 SAP+에 참가한 학생들 모두 무사히 유학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인사가 되도록 우리 대학은 앞으로 더 열심히 지원할 것이다.

한편, 우리 대학은 SAP뿐만 아니라 여학생수부터 해외 탐방, 인턴십까지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동서대학교의 뛰어난 글로벌 프로그램은 학생 개개인의 머리와 가슴 속에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는 자양분이자 디딤돌이 되고 있다. 다양한 SAP과 더불어 ▲DAIP ▲동서아너스사이언티 ▲국제기술봉사단 ▲ASP ▲동서글로벌영어로프로그래밍 ▲해외교환학생프로그램 등이 있으니 세계적인 꿈을 키워보자.

조수연 기자
noeyushc@gmail.com

창업의 꿈을 더욱 크게

네트워킹데이 개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연합 네트워킹데이

우리 대학과 동아대, 동주대, 부경대, 영산대 등 5개 창업보육센터가 주관한 '2022 부산지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연합 네트워킹데이'가 지난 9월 20일 아바나 센트럴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을 공고히 하고 창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5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26개사 대표와 멘토, 대학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창업특강을 비롯해 ▲IT·앱 개발 ▲투자상당·IR ▲비즈니스모델·마케팅 ▲경영컨설팅·자금조달 ▲기술컨설팅·R&D 등 5개 분야별 멘토링이 진행됐다.

이날 창업특강과 경영컨설팅·자금조달 분야 멘토로 초대된 플즈다이나믹스 강종수 대표는 20대 대학 시절에 창업한 회사를 80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이후 부산-경남 최초의 액셀러레이터 회사를 창업한 인물이다. 강 대표는 "창업가와 투자자"라는 주제로 투자자가 보는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해 줬다.

특히, IT·앱개발 분야의 멘토로 초대된 빈투게더 박형배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 수산아이엔티의 전신인 플러스기술을 창업해 성공적으로 엑시트한 경험이 있으며, 2016년에는 산업포장을 수상한 바 있는 인물로 스타트업의 성장에 관한 플스토리를 아낌 없이 전해줬다.

행사에 참여한 예류매직 김외연 대표는 "멘토분들이 모두 창업 고수들이라 이야기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귀중한 팁을 많이 얻고 인맥도 넓힐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며 자리를 지켜주었다.

이날 축사를 한 우리 대학의 권경수 창업보육센터장은 "창업보육센터는 대학발 창업의 메카이다. 이러한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창업보육센터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스타트업이 사업하기 좋은 부산이 되도록 대학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의 창업지원단에서는 1999년에 창업보육센터 개소 후, 2022년 8월 기준 20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또한, Dream Engineering Valley와 벤처랩에 22개의 개별 창업보육실을 갖추고 있다.

부산에는 현재 17개 창업보육센터에 약 330개사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으며 울산 2개(약 60개사) 창업보육센터와 더불어 부산-울산창업보육센터협의회(BUBIA)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BUBIA는 네트워킹에 힘을 불어넣어 지역 내 창업보육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사업 수행, 창업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 사업 수행, 입주기업별 창업기업의 경영능력 향상 및 기술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수연 기자
noeyushc@gmail.com

감기, 얼마나 알고 있나?

환절기 대비 건강 관리법



▶ 감기 바이러스 전이



▶ 감기 증상



▶ 프랑스 민간요법 '뱅쇼'

▶ 사진출처 - 환경부 공식 유튜브 채널

요즘에야 마스크를 끼는 것이 일상이지만 예전에는 마스크를 끼고 있는 사람들을 드문드문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감기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었지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감기 조심하라는 말이 친구들 혹은 지인들끼리 흔히 쓰는 인사말로 쓰일 정도로 감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감기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감기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또 누구나 한 번쯤은 걸려보기도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감기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예방하는지, 과거에는 감기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조목조목 알아보고 감기에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자.

감기란 정확히 어떤 병일까?

우선 감기란 무엇일까? 감기는 단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증상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확한는 서울대학교병원의

말에 따르면 감기를 200여 종 이상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 기계의 감염 증상이라고 정의한다. 이처럼 감기는 다양한 바이러스에 코와 목과 같은 호흡 기계가 감염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다. 증상으로는 주로 근육통이나 두통 등 신체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목에 열이 나기도 하며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오는 등 호흡 기계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증상이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경우가 대다수여서 진통제, 해열제 등을 복용하거나 치료 없이도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기 쉬운 바이러스여서 주의가 요구된다. 감기 환자의 비말을 통해 타인에게 쉽게 옮기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려면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여담으로 최근에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면서 감기 환자가 많이 감소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과 감기 증상이 유사하

여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굳이 따지자면 후각과 미각 기능의 상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PCR), 신속 항원 검사와 같은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감기는 왜 치료약이 없을까?

우리는 흔히들 감기에 걸리면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처방받는다. 하지만 이는 흔히 감기 증상을 완화시키고 대응하는 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감기약'으로 통용된다. 종합 감기약의 경우 호흡기계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항히스타민제(주로 알레르기 약에 사용됨)를 함유하기도 하고, 두통과 목 아픔 등의 통증과, 발열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로 유명한 진통제 성분) 성분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는 모두 감기 바이러스 자체를 제거하는 직접적 치료 방법이 아닌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증요법'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왜 감기약은 치료제가

없는 것일까? 우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바이러스의 종류가 약 200여 가지로 너무 다양하여 이 모두를 대응하고 치료하기에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자주 변이하고 발전하는 바이러스의 특성상 백신을 만들기도 까다로운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받는 독감예방접종의 경우에도 모든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것이 아닌 발병률이 높은 4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것이다.

감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감기 예방에 있어 가장 핵심인 것은, 원인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감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손을 자주 씻어 손에 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바이러스 보관자의 용품을 공유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바이러스 예방에 있어서는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노력 또한 요구된다.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 손

으로 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소매로 가리는 것과 같은 기침예절이 필요하다. 그리고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기 위해 다중 분화시설이나 공용 시설에서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감기를 어떻게 대처했을까?

감기를 질환으로 규정된 것은 1950년대이지만 인류가 감기와 함께 해온 것은 굉장히 오래됐다. 감기를 가리키는 영어(Cold)는 16세기 경 사용되었는데 감기 증상은 16세기 경 사용되었는데 감기 증상이 추운 날씨에 겪는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긴 역사를 가진 감기는 다양한 민간요법으로 대처했다. 지금부터 세계의 다양한 민간요법을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는 매콤한 고춧가루를 넣은 콩나물국을 먹었다. 콩나물은 비타민A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고춧가루는 매운 성질로 땀을 내게 하여 체내 노폐물을 방출해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또한 기침과 목감기와 같

은 경우 이를 다스리는데 효과적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배를 갈아 마셔 증상을 완화 시키기도 한다. 유럽의 경우, 특히 프랑스에서는 '뱅쇼'를 마시는데 이는 따뜻한 와인이란 뜻으로 와인에 계피와 과일 등을 넣어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다. 추운 날씨에 자주 걸리고 증상이 비슷한 감기 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와인으로 체온을 올려 감기를 대처하는 것이다. 미국은 치킨수프를 먹는다. 우리는 삼계탕을 보양식으로 먹듯이 미국 역시도 닭을 먹어 질병을 회복하는 것이다. 닭에는 면역을 도와주는 카르노신인 함유되어 있어 이를 따뜻하게 끓여 먹고 기온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널리 쓰인다. 지금까지 알아본 감기와 예방 방법으로 이번 겨울에는 감기 없는 겨울을 보내보도록 하자!

자료출처 :

- 네이버 지식백과 - [감기]
- 두산백과 두피디아 - [대증요법]
- 조선일보 - [대륙별 감기 민간요법]
- 도업수습기자

짧고 짤은 것이 대세!

15초면 영화 한 편 보는 세상



▶제로 투 챌린지

▶ 사진 출처 - 레딧



▶ 인기있는 3대 숏 폼



▶ '아무노래' 챌린지

▶ 사진출처 - T-Trend 티트렌드 유튜브 채널

20년 전 우리들을 상상해보라. 영화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하루를 꼬박 기다리거나 비디오방에서 차례를 기다려 드라마를 즐기곤 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번거로운 수고 대신 손가락 몇 번 튕기는 것으로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무엇이든 빨라진 세상과 그와 함께 빨라진 콘텐츠, 숏 폼(Short Form)에 대해서 알아보자.

숏 폼(Short Form)이란?

Short Form이란, 짧은 형태를 뜻한다. 즉, '짧은 동영상'이란 뜻이다. 모바일 플랫폼 틱톡(TicTok)이 시작한 숏 폼 콘텐츠는 평균 15~60초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동영상이다.

숏 폼의 발달 배경

우선, 숏 폼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자. 수백 년 전, 농경 사회였던 조선시대는 ▲자시, ▲축시, ▲도시 이렇게 2시간 단위로 나뉘었다. 세부

적인 시간보다 절기 같은 긴 시간의 단위가 중요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과거와는 달리 현대인들은 짧게 쪼개진 시간에 정확히 맞춰 살아간다. 자연스레 시간과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러한 현상은 문화 콘텐츠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더구나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는 어디서든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굳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 TV 앞에 앉아 있을 필요도,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에 갈 필요도 없어졌다. 지하철, 식당, 틱톡 시간 언제 어디서든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을 꺼내 미지의 세상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숏 폼의 인기 비결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는 '주의 집중 시간'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캐나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뇌파 측정 연구를 한 결과, 인간이 한 사물에 집중하는 평균 시간이 2000년 12초에서 2013년 8

초로 줄어들었다. 금방어의 평균 주의 지속 시간(9초)보다 1초 짧은 수치다. 집중을 지속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대신보다 많은 자극을 원하도록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숏 폼 콘텐츠는 짧은 시간에 요점만 간략히 전달한다. 소비자들은 지루할 틈도 없이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금공증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를 '스낵 컬처(Snack Culture)'라고 부른다. 과자를 먹듯 짧은 시간 내에 문화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뜻이다. 시간과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현대인들의 니즈를 반영해 1분의 시간만으로도 여러 영상을 전달한다.

기존 TV, 영화 등 대중들에게는 가로 긴 화면이 익숙하다. 특이하게도 숏 폼 영상들의 형태는 세로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카메라 구도는 무엇을 담을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풍경이나 많은 것을 담아야 하기 위해서는 가로로 긴 화면이 유리하지

만 숏 폼 영상에서는 주로 인물이 피사체가 된다. 인물영상을 가로로 찍는다고 가정해볼까? 우선 인물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인물로부터 물러나야 한다. 그렇게 되면 화면에는 불필요한 정보가 보다 담기게 되고 시청자는 피사체에 대한 집중이 분산된다. 따라서 가로보다 세로 앵글이 더 적절하다. 그리고 틱톡(TicTok)과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칸타(Kantar) 주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짧은 세대들은 세로로 된 영상이 가로로 된 영상보다 17.4% 더 흥미를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다.

틱톡의 영향

2020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지코의 '아무노래' 챌린지와 '제로투' 챌린지와 같은 쉽고 재미있게 따라 할 수 있는 챌린지들은 폭발적인 인기를 이끌며 많은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억지로 고풍이나 마케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챌린지를 유행시킨 차별화된 부분이다. 사람들은 자

신의 트렌드라고 멋진 순간을 어필할 수 있는 챌린지에 참여해 사회적으로 비치는 자신의 가치를 올린다. 틱톡은 다양한 해시태그(#)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며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든 챌린지에 참가하거나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생산자 또한 될 수 있다.

숏 폼의 대표주자인 틱톡은 2021년 구글을 밀어내고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틱톡이 인기를 끌며 경쟁사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도 각각 쇼츠와 릴스라는 숏 폼 서비스를 출시한 상황이다. 기존 SNS 감자였던 인스타그램에 릴스 기능이 추가되면 숏 폼 콘텐츠에 생소한 사용자들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도 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틱톡을 통해 노래들이 유명해지기도 하는데, 작년 빌보드 연간차트 1위, 역대 1주 집계 스트리밍 1위, 역대 최장기간 1위(19주)라는 대기록을 세운 'Lil Nas X'의

<Old Town Road> 또한, 틱톡의 챌린지로 급격한 인기를 얻게 되었다. 지코의 '아무노래' 역시 틱톡 챌린지로 유명해졌다.

MZ세대에게 숏 폼이 인기를 이끄는 데, 많은 기업은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미국 NBC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더 보이즈(The Voice)>는 새로운 시즌 방영을 알리며 유튜브 채널에 쇼츠 영상을 공개했다. 국내의 기업 CU는 숏 폼 드라마 방영을 시작한지 39일 만에 1억 뷰 달성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 쇼츠는 진인 장벽이 낮아 잠재 시청자들의 주목을 끌기 쉬워 마케팅 효과가 상당하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숏 폼 콘텐츠, 우리도 함께 참여하여 전 세계와의 소통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자료출처 : 뉴시스 - 숏폼 전성시대, 콘텐츠 머니투데이에선 - '유튜브 쇼츠'에 맞는 콘텐츠는 따로 있다. 디지털 인사이트 - 지코 아무노래 챌린지는 왜 성공했을까? 백정호 수습기자

■ 홍보대사 인터뷰 - 지현정 학생

23학번을 위한 힘이 되는 한마디

동서인의 응원



▶ 홍보대사 20학번 치위생학과 지현정 학생



Q. 현정 학생도 1학년 새내기 시절이 있었는데, 현정 학생에게 '새내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제가 생각하는 새내기는 대학 생활 중 한 번밖에 없는 거라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20살이 한 번인 것처럼 새내기도 단 한 번이니까요. 새내기도 딱 그 순간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걱정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게 새내기 시절이라 후회없이 즐길 수 있는 낭만 있는 시절이라 생각합니다.

Q. 이제 막 동서대에 들어오는 새내기 학생들에게 홍보대사 외에 추천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가요?

A. 저는 해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국제기술봉사단이라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코로나 시기와 겹쳐서 못 한 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국제기술봉사단 모집공고를 보신다면 바로 지원해 보세요. 그리고 SAP 추천해 드려요. SAP는 학교의 지원을 받고 해외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이런 프로그램 참여도 있지만 동아리나 학과 학생회 활동같이 교내에서 학생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11월 16일에 수시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합격하는 새내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먼저 힘든 고등학교 3년 보낸다고 고생 많았고, 이제는 즐겼으면 좋겠어요. 단 한 번뿐인 20살이 돌아오지 않는 게 20살입니다. 딱 한 번 있는 20살,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의미 있는 1년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놀라고 하는 건 아니고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가보고 자격증 공부나 아르바이트 등등 고등학교 때는 하지 못했던 걸 다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수시 합격 너무나 축하드리고, 예비 동서인이 아닌 동서인으로 만나요!

Q. 마지막으로 곧 수능을 앞둔 예비 동서인 친구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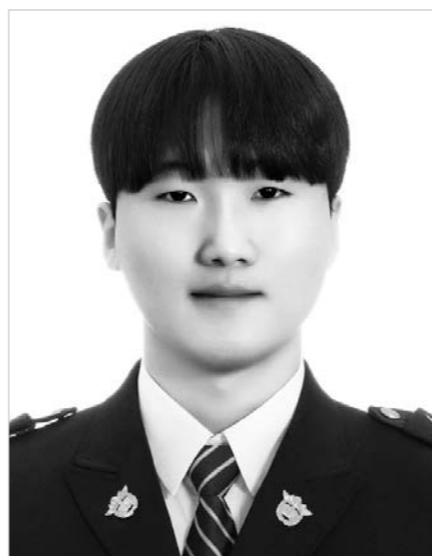
A. 이제 정말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집중력 있게 공부하시고 수능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문제는 다 맞히고 정말 만약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면 찍어서 맞추고 모두 잘 왔으면 좋겠어요. 응원하겠습니다. 돌아와서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능 화이팅!

문수연 수습기자

■ 학생 인터뷰 - 경찰행정학과 학과대표 김경표

우리만의 특별한 MT를 바라보며

경찰행정학과 학과대표 김경표 학생



▶ 김경표 학생

코로나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던 MT가 2학기를 기점으로 부활했다. 각 학부, 학과마다 MT를 준비하며 설렘과 기대를 안고 있을 것이다. 특히나 20, 21학년 학우들은 1학년 때 MT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MT를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타 학과와는 조금 다른 경찰행정학과 MT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Q.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제13대 경찰행정학과 대표 김경표입니다. 2남 3녀 중 장남으로 맡은 일은 끝까지 하고 매우 활발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취미는 운동으로 배드민턴을 좋아하며 학과 동기와 대화에 출진하여 우수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 이브하는 것을 즐기곤 합니다.

Q. 바쁜 학교 일정 와중에도 MT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요?

A. 순조롭습니다. MT를 대비하여 학생회는 방학 동안에 시간을 맞춰서 회의를 하여 다양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MT가 중간고사 이후에 진행됨으로써 학업에 방해되지 않게끔 했으며 아직 남은 준비 기간 동안 계속 준비하며 다 같이 즐겨주는 행사로 만들 예정입니다!

Q. 이번 MT는 1학년들이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것이 있을까요?

A. 아직 선배들과 친해지지 않은 1학년



▶ 제9기 한마음순찰대 발대식

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MT를 통해 친목 도모와 단합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및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활동이 많은 것도 좋지만 저녁 식사 후에는 강당에 모여 상품 걸고 장기자랑 및 조별 게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Q. 이번 MT를 계획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A. 코로나19로 인해 중지됐던 MT를 준비함에 있어 미숙한 부분도 많았고 모르는 부분도 많았지만 경찰행정학과 학생들과 교수의 도움을 통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오랜만의 MT인 만큼 철저히 준비를 해서 성공적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Q. 이번 MT를 계획하면서 본인이 1학년 때 갔던 MT와 차이점이 있을까요?

A. 이번 MT는 1학년 때와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갔던 MT는 순경공체에 최종합격하게 되면 교육을 받는 곳인 중앙경찰학교를 견학한 후 가까운 수련관에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선배들과 이야기하며 1박2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과 MT는 교수님들의 의견으로 견학과 MT를 분리하여 정말 단합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고 마쳐 여행을 가는 느낌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또한 교수님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억에 남고 의미있는 MT가 될 것 같습니다.

Q. 타 학과와 차별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A. 경찰행정학과는 타 학과와 달리 각 학년별로 학과 관련 진로방향성에 맞는 장소로 견학을 갑니다. 1학년은 중앙경찰

학교, 2학년은 과학수사연구원, 3학년은 부산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해 시찰을 둘러보고, 그곳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며 향후 진로를 결정하고 학업의 동기부여를 얻는 등 경험 위주로서 경찰행정학과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Q. MT를 준비하면서 참여하는 학우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A. 1학년 학생들은 MT가 처음이고 2, 3학년 동기, 선배님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랜만에 가는 MT인 만큼 학교를 다니며 받은 스트레스를 모두 풀 수 있도록 신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학년과 선배 간의 교류 활동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번 MT를 계기로 서로 얼굴도 익히며 좋은 선배 관계 맺어서 오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Q. 2년 만에 진행되는 MT인 만큼 많은 학우들이 바라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A. 일 년에 몇 번 없는 단합의 장소인 만큼 선배 간의 즐거운 만남을 가장 바라고 있는 듯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고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MT를 가 본 적 없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MT를 더욱더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1학년 학생들은 2, 3, 4학년 선배들과 수업을 같이 듣는다고 활동을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얼굴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 저희 학과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활동 중 대다수 학생이 참여하는 행사로는 MT가 두 번째이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욱 수습기자

성경 속 음식이야기



▶ 자메 테스트의 《만나의 수집》

▷ 사진출처 - 위키백과

식사란 무엇인가?

모든 생물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사람도 예외가 아니기에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행위를 '식사'라 하며 이는 '끼니'로 음식을 먹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식사는 이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더불어 자기 삶의 일부를 나누게 된다. 식사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식사와 가족

가족을 칭하는 또 다른 말로 '식구(食口)'라는 표현이 있다. 한집에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는데, 이를 다시 생각해 보면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나온다.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

유대인들의 식사

유대인들은 식사를 신성한 것으로 생각

했다. 그들은 식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으로 생각했고, 파스카와 같이 특별한 식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믿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즐거운 시간이었으며, 즐거움과 유쾌함을 상징했다(잠언 15, 15). 한편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언제나 식사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식사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역할도 했다(마태 9, 913).

성경 속 식사

성경에서도 식사는 특별한 행위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셨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군중을 먹이셨다. 초대교회에서도 식사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 식사는 예식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제자들은 이를 통해 예수님을 기억했다. 또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었기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서로서로 일치를 이루었다. 사도행전은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은 증언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

에 구원받은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사도 2, 4647).

이처럼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에는 영양 섭취에서부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징과 메시지가 담겨 있다. 물론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충 끼니를 때우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식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과 그 음식을 위해 수고해 준 모든 존재들을 위해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끝자락에 허락하는 이웃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식사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것이 성체성사이고 우리가 영성체를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타인을 위해 나 자신을 나눌 수 있어야 하겠다.

하나님 사랑 삼기시던 증거물로 성체의 예표, 만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 광야 생활을 할 때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작하여 다다를 때까지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경계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었다."(탈출 16.35).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에는 과연 어떤 음식이었을까? 탈출기에 나오는 만나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음식이었다(탈출 16장). 이슬과 함께 내렸다는 하얀 만나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내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굶어모아 양식으로 사용했다.

성경에 따르면 만나는 빵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집안은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도. 그것은 고수풀 씨앗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탈출 16.31).

하늘이 내려준 음식 '만나'

태양이 떠오르기 전인 이른 아침에 광야의 모래 위에서 '흰 서리 같은 것'(탈출 16.14)이 내렸다. "이슬이 걸린 뒤에 보니, 잘기가 땅에 내린 서리처럼 잔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린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야?'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탈출 16.14-15).

만나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나 관목의 잎사귀에 맺히는 이슬 모양의 형성물이다. 만나는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 비교적 단단하게 굳어지는데 맛이 단 편이다. 만나는 식량이 부족한 사막에서는 오늘날에도 식량으로 사용된다. 오늘날도 시나이 광야를 유랑하는 베두인족은 양식으로 만(man)이라는 것을 모

은다. 광야를 뒤덮는 만은 결정화된 낱알로 돼 있는데, 햇볕에 녹는다. 그 낱알들을 두드리거나 쪼으면 구울 수 있게 되는데, 쪼려낸 단맛이 나고 성경의 만나와 비슷하다.

만나는 영성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만나는 먹을 양식으로써 생명과 연관돼 있으며, 당시 백성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사랑을 상기시켜 주는 눈에 보이는 증거물이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당시 백성에게 자연적인 만나를 기적으로 제공하셨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자연적인 일을 기적적인 방식으로 선사하셨다.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자연적인 빵을 많게 하시고 나눠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당시 백성에게 시나이의 만나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셨다. 사도 바오로는 이 만나가 성체의 예표라고 했다(1코린 10장). 예수님께서도 당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비유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씀하셨다(요한 6장). 예수님은 구약의 만나와는 다르게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만나로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빵이라고 선언하신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요한 6.58). 그리스도도 공동체에서 거행되는 성찬례 안에

이와 같은 만나의 의미가 담겨 있다. 김선희 수습기자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 부산지역 대학생을 위한 한국거래소, CEO멘토링
- 접수기간 : ~2022.11.8. (화)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멘토링/대외활동



- 퍼포먼스 마케터 직무체험
- 접수기간 : ~2022.11.09. (수)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인턴십



- 2022 국회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 접수기간 : ~2022.11.11. (금)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아이디어/기획



- 해외파견 WFK 청년봉사단 43기 단원 모집
- 접수기간 : ~2022.11.13. (일)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봉사/대외활동



- 2022 삼성금융네트웍스 금융아카데미 SFA
- 접수기간 : ~2022.11.18. (금)
- 응모대상 : 대학교 4학년 및 졸업생
- 공모분야 : 대외활동



- 제4회 해양경찰청 노래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11.20. (일)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공모전



- 한-메콩 에세이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11.20. (일)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공모전



- 페브리즈 광고영상,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11.20. (일)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광고, 아이디어, 미디어



- 2022 하반기 정보보호 취업박람회
- 접수기간 : ~2022.11.21. (월)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대외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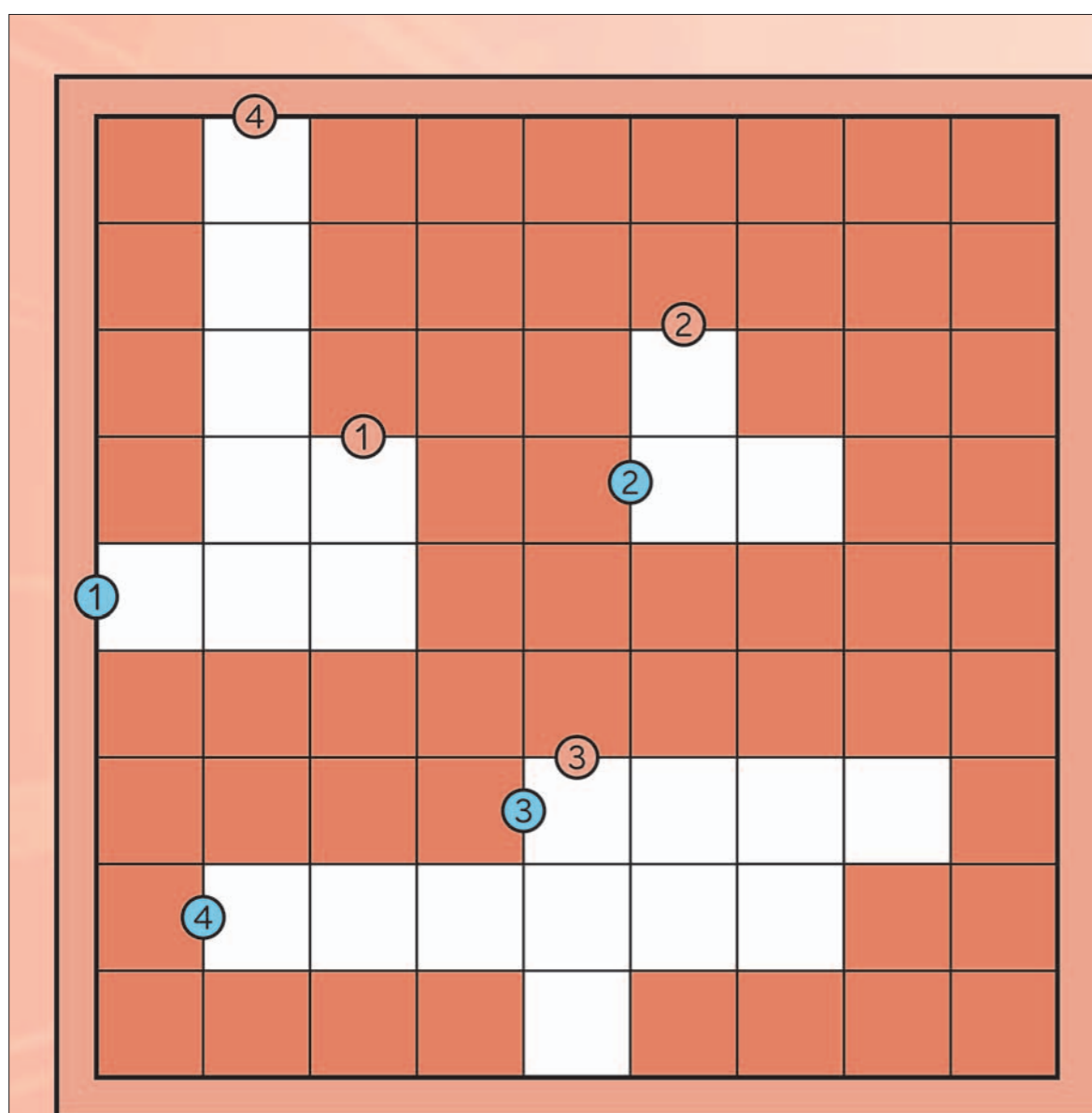
- 삼성 금융영업전문가 과정 19기 모집
- 접수기간 : ~2022.11.25. (금)
- 응모대상 : 대학교 4학년 및 졸업생
- 공모분야 : 멘토링/대외활동



- 2022 탄소중립과 원자력의 역할 영상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11.28. (월)
- 응모대상 : 부산 기장군 거주자
- 공모분야 : 미디어, 공모전



- 다이와 대학생 티셔츠 디자인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12.13. (화)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아이디어, 디자인



- DSU NEWSPAPER - 맞춰봐요 낱말퍼즐

<p>가로</p> <p>① 계절이 바뀌는 시기라고도 하며, 일교차가 심해진다</p> <p>② 와인에 계피와 과일 등을 넣어 따뜻하게 마시는 것</p> <p>③ 우리 대학 홍보대사를 칭하는 단어</p> <p>④ v603팀이 최우수상을 받은 대회 (2022 부산 000000 경진대회)</p>	<p>참여방법</p> <p>① 낱말퍼즐을 잘라 산학협력관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의함에 넣은 후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세요!</p> <p>② 정답이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 아래의 번호로 보내주세요! 편집국장: 010-4915-8702</p>
<p>세로</p> <p>① 여러 종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증상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p> <p>② 유튜브 채널의 숏 폼을 일컫는 말</p> <p>③ 한 단위로 다루어지는 데이터의 집합</p> <p>④ 우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성경암송대회에서 암송하는 것</p>	<p>11월 29일까지 낱말퍼즐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11월 30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p> <p>* 학 과: * 학 년: * 이 름: * 연락처:</p>